



5. 퍼즐에서 (A)의 세로에 들어갈 낱말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B)			
	(C)		
(D)			

【가로 열쇠】  
 (A) 어느 지역,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 타당한 법  
 (B) 백성을 근본으로 함  
 (C) 송나라 때 도학을 집대성한 사람  
 (D)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세로 열쇠】  
 (A)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음

<보 기>

ㄱ.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통제를 강조한다.  
 ㄴ. 경제 활동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ㄷ. 전후(戰後) 제3세계 비동맹 정책의 이념적 기반이다.  
 ㄹ. 환경 오염, 빈부 격차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갑, 을 사상가의 공통된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격물(格物)이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른다든 것을 의미하며, 치지(致知)란 나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서 그 지식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지는 격물의 목적이자 결과이다.  
 을 :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心]의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밖에서 사물의 이치를 구하면 사물의 이치는 없다. 사물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구한다면, 내 마음은 또한 어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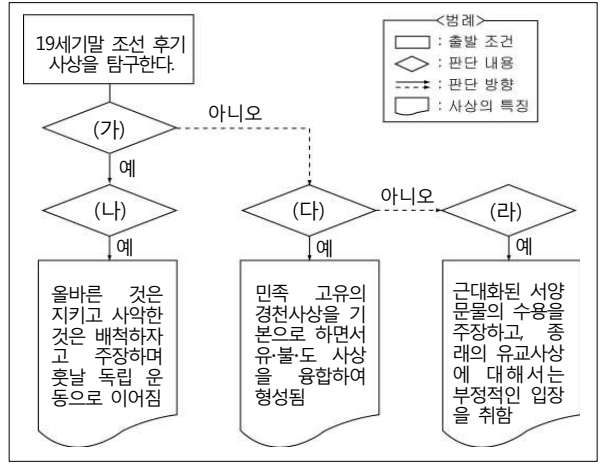
- ①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는 기(氣)이다.  
 ② 앞과 행함에는 본래부터 선후(先後)가 없다.  
 ③ 인간은 사물의 이치를 선천적으로 알고 있다.  
 ④ 도덕적 실천과 함께 지식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⑤ 성인(聖人)에 이르는 방법으로 도덕적 수양을 강조한다.

7. 고대 서양 사상가인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현명한 사람은 우주의 본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자연의 이법에 따르는 삶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재한다는 제우스조차도 이에 따라야 한다.  
 을 : 현명한 사람은 즉시 쾌락을 선택하거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쾌락과 순간의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안정을 추구한다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① 갑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② 을은 불안과 고통이 없는 평온한 삶을 중시하였다.  
 ③ 을은 이성 에 따른 태도와 행복한 생활을 중시하였다.  
 ④ 갑은 욕구를, 을은 타고난 본성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였다.  
 ⑤ 갑, 을 모두 도덕의 원천으로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였다.

8. 그림의 (가)~(라)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 :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는가?  
 ㄴ. (나) : 민족 의식, 인간 존중과 호국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가?  
 ㄷ. (다) :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평등주의를 표방하고 실천에 주력하였는가?  
 ㄹ. (라) : 피지배층이 중심이 되어 현실 개혁의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는가?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진위시비(眞僞是非)·선악미추(善惡美醜) 등의 구별은 각자의 편협한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다. 도(道)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일체의 대립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원리에 귀일(歸一)하게 된다.  
 (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씨는 자주 속이 상한다. 한국말이 서투르서 무시당하기도 하며, 시장에 가도 물건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여 기분이 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① 오상(五常)을 몸에 익혀 실천해야 한다.  
 ② 타고난 본성을 바탕으로 예(禮)를 확충해야 한다.  
 ③ 오감(五感)에 의해 얻은 지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④ 상황의 옳고 그름을 인식하여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⑤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의 모습이 상대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10~11]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도덕적 행동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 자체만으로 의무의식에서 나와야 한다. 인간은 의무의식을 통해 도덕성을 존중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을 : 우리는 타인의 유덕함에 대해서는 사랑의 감정을, 악덕에 대해서는 증오감을, 자신의 유덕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부덕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낀다. 이와 같은 감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도덕적 기준을 공유할 수 있다.

10. 갑, 을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은 방법적 회의를 통한 진리탐구를 강조하였다.
- ② 을은 도덕법칙의 정언(定言)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 ③ 갑은 실천이성을, 을은 공감(共感)을 중시하였다.
- ④ 갑은 자유의지를, 을은 선의지(善意志)를 중시하였다.
- ⑤ 갑, 을 모두 사유와 지식의 근원으로 경험을 강조하였다.

11. 갑, 을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문제 상황>

상습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과 가족 해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연예인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보 기>

ㄱ. 전통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렴!  
 ㄴ. 도덕 법칙의 명령에 따라 행위하렴!  
 ㄷ.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행위하렴!  
 ㄹ. 자신의 정신적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행동하렴!

- |     |   |     |   |
|-----|---|-----|---|
| 갑   | 을 | 갑   | 을 |
| ① ㄱ | ㄴ | ② ㄴ | ㄷ |
| ③ ㄴ | ㄹ | ④ ㄷ | ㄹ |
| ⑤ ㄹ | ㄱ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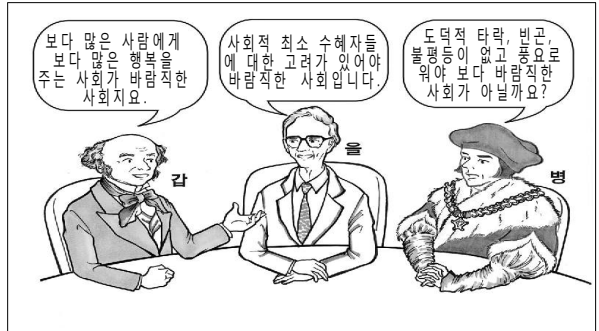
12.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다.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을 : 상황에 따라 진리는 다르게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의 입에는 산해진미로 느껴질 수 있는 음식이라도 병이 난 사람의 입에는 쓰게 느껴질 수 있다.

- ① 보편타당한 진리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 ② 도덕적 기준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한다.
- ③ 진리의 상대적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한다.
- ④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의 가치를 무시한다.
- ⑤ 개인이 지닌 독자적인 판단기준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13.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이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 -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는 사회
- ② 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사회
- ③ 병 - 업적과 계약에 따라 재화를 배분하는 사회
- ④ 갑, 을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 ⑤ 을, 병 -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사회

14. (가)의 관점에서 (나) 사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시장 자체의 힘에 의해서 수정되기 어렵다.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는 경쟁 관계의 왜곡,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막대한 해를 끼친다. 따라서 합당한 경쟁이 되도록 원칙을 세우고 관철시켜야 한다.

(나) 인간의 경제 행위는 외부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조절되는 질서에 따라야 한다. 시장 경제는 질서기에는 혼란과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스스로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기업의 경제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ㄴ. 적절히 시장에 개입하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ㄷ. 경제 성장을 위하여 시장의 자유를 확대한다.  
 ㄹ. 배분적 정의의 확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세상 만물이 좋음[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 역시 모든 행위와 선택을 통해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좋음의 추구는 목적이며 곧 행복이다. 인간은 행복을 목적 그 자체로 추구할 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추구하지는 않는다.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 활동이다.

- ① 도덕적 삶에 있어서 습관화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② 자아실현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 ③ 감각적 현상의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한다.
- ④ 품성적인 덕에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⑤ 이성이 인간의 삶과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에 나타난 덕목을 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으로 서로 관련되어 생겨나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그것이 생긴다.  
 (나) 아버이 살아 신 제 섬기기 다하야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 ① 인(仁)에 근거하여 나타난 덕목이다.
- ② 후손의 발전과 가문을 위한 덕목이다.
- ③ 형제자매 간에 가져야할 자연스러운 덕목이다.
- ④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을 강조한 덕목이다.
- ⑤ 인연(因緣)의 은혜에 대한 보은(報恩)의 실천 덕목이다.

17.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모든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생긴다. 그것이 충족되면 욕망은 사라진다. 욕망은 한이 없지만 충족은 잠깐이다. 욕망에 집착하여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는 맹목적이다. 이것에 휘둘리는 인간의 삶 역시 맹목적이며 고통스럽다.  
 을 : 개인과 최고의 인륜인 국가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의 의미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 ① 갑은 이성에 기초한 금욕을 추구한다.
- ② 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사유를, 을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갑은 직관과 체험을, 을은 공동체 윤리를 강조한다.
- ⑤ 갑, 을 모두 국가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계약의 산물로 본다.

18. 다음은 춘추전국시대 어느 사상가와 가진 가상 인터뷰 내용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 자 :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 네. 예(禮)의 실천과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가 없으면 사회의 안정도 이를 수 없습니다.  
 기 자 : 올바른 정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상가 : 현자(賢者)와 유능한 자는 차례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기용하고, 열등하고 무능한 자는 지체 없이 파면하며, 보통 백성은 행정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교화(敎化)해야 합니다.

- ① 타고난 본성의 보존과 확충을 강조한다.
- ② 백성의 무지(無知), 무욕(無慾)을 강조한다.
- ③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소국과민(小國寡民)을 강조한다.
- ④ 부(富)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강조한다.
- ⑤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人爲)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19.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군주는 의(義)에 밝지만 소인은 이(利)에 밝다. 군주가 예(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공경하며, 의(義)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군주가 덕스러워야 국가가 안정된다.  
 을 : 천의(天意)를 따르는 자는 겸(兼)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니 반드시 상을 받는다. 천의에 반하는 자는 구별하여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치니 반드시 벌을 받는다.

- ① 갑은 수기(修己)를 통한 도덕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였다.
- ② 갑은 노동에 힘쓰고 예악(禮樂)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③ 을은 분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 ④ 을은 법(法)과 술(術)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을 추구하였다.
- ⑤ 갑, 을 모두 의리와 이익을 상호 대립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20. 다음은 윤리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3점]

[ 조선시대 성리학자 A의 심성론 ]

그림은 '이(理)는 귀하고 기(氣)는 비천하다'는 A의 심성론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A의 입장에 맞는 견해를 발표해 보세요.

- 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근원은 다릅니다.
- ② 사단(四端)이라는 것은 칠정(七情)의 선한 측면일 뿐입니다.
- ③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본래 구분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 ④ 이(理)와 기(氣)는 상호 의존과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 ⑤ 발하는 것은 이(理)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기(氣)입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